

제3권 (9단원) 성도의 풍성한 삶

(제48과)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

- 본문 : 빌립보서 4:10-20
- 요절 : “나의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
- 찬송 : 410장(새찬송가 310장), 488장(새찬송가 428장)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할 적이 많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빌 4:18)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을 뿐 아니라 어떤 역경 중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어떠하며, 자족하는 삶의 유익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다음,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살았던 에덴동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 2:8~9)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땀 흘려 수고 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다시 은혜로운 선물을 예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복과 은혜를 매일 새롭게 인식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 1:14)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음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때로 예상치 못한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은 죄와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저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므로 두려움 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이곳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느라고 숭한 어려움에 봉착하곤 하였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파선하여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1~13)는 그의 고백대로, 그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받은 바 은혜에 자족하기를 배워 풍부할 때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으며, 궁핍할 때 비굴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 감사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3. 성도들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자족하기를 배운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는 말씀을 믿으며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빌립보 교회와 신자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회들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도움을 베풀었으나 이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연약한 자를 돕는데 힘쓰는 성도는 더 헌신하며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이웃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게 되며, 또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더 많은 불신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바 복을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 기록된 복된 언약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움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